

농어촌공사 합천지사, 지역개발사업 20개 지구 올해 마무리

등록 2025.10.20 17:31:46



[합천=뉴스시스] 합천농어촌공사 전경 (사진=합천농어촌공사 제공) 2025. 10. 20. photo@newsis.com

*재판매 및 DB 금지

[합천=뉴스시스] 서희원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경남 합천지사(지사장 김동원)는 총사업비 112억원이 투입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,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20개 지구사업을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.

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지역소멸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 농어촌 주민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구의 유입을 위해 농어촌지역 어디에서나 불편 없는 공간을 만들고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, 어촌뉴딜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’은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사업이며, ‘농촌공간정비사업’은 농촌의 난개발과 위해요소가 되는 마을 주변의 공장, 축사, 빈집, 유희시설 등을 정비하여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사업이다.

김동원 합천지사장은 “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‘울원 및 상포마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’은 울원마을과 상포마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”이라며 “안전·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,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을 통해 마을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위한 사업으로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